

MAKE THE WORLD SMARTER

KOREA PROPTech FORUM

KOREA PROPTech STARTUP OVERVIEW



proptech.or.kr

목차

| | |
|----------------------|----|
| 들어가는 말 | 03 |
| 2020 프롭테크 시장 변화 | 04 |
| 국내 프롭테크 생태계 | 08 |
| 한국프롭테크포럼 스타트업 회원사 현황 | 18 |
| 맺음말 | 24 |

들어가는 말

세계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형적인 로우테크(Low-Tech) 산업으로서 낮은 디지털 전환율을 보여온 부동산 산업 또한 디지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폐쇄성을 기반으로 했던 부동산 산업에 정보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롭테크가 등장한 것이다. 프롭테크는 데이터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부동산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이제 프롭테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깊이 녹아들기 시작했으며, 전 밸류체인에 걸쳐 영역을 확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프롭테크 시장은 이후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프롭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프롭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프롭테크포럼이 창립되었다. 26개 프롭테크 기업이 모여 시작된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설립 2년이 채 되지 않은 2020년 10월, 회원사 수가 214개사에 이르렀다. 특히 직방과 호갱노노와 같은 부동산 중개 및 부동산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한 프롭테크는 이제 빅밸류, 카사코리아, 스페이스워크, 엔젤스윙 등 빅데이터 및 AI, 부동산 수익증권, 부동산 자산관리, AR 및 VR, 드론 등 더욱 폭넓은 영역으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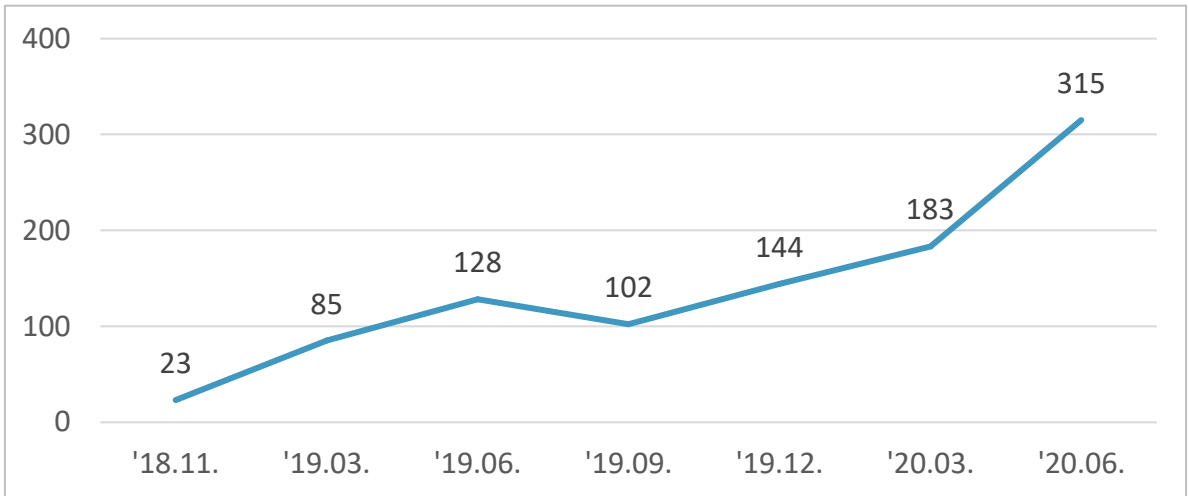
현재 프롭테크는 우리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으며 부동산의 트렌드와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의 원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들이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사와 개발사, VC 및 투자사 등 기존 부동산 분야 기업들 역시 사회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보하고자 프롭테크에 주목하고 있다. 그 결과, 프롭테크는 2019년부터 부동산 및 스타트업 업계 모두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으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 프롭테크는 코로나19로 시작된 비대면 시대에서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가상 3D 디자인, 3D 부동산 매물 투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언택트 시장을 선도하면서 그 발전 가능성을 여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프롭테크가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서는 프롭테크 산업에 대한 현황 조사나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다. 몇몇 기업들에서 프롭테크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프롭테크 산업 전반에 대한 규모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프롭테크포럼에서는 현재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트렌드 및 동향을 살펴보고, 포럼의 회원사로 소속된 IT/TECH/스타트업 기업 130개사에 대한 수치를 바탕으로 프롭테크 스타트업 시장 현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 및 산업계의 프롭테크에 대한 이해와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나아가 향후 학계 등에서 이루어질 프롭테크 관련 연구들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 프롭테크 시장 변화

1. 프롭테크 보도량 추이

[그림1] '프롭테크' 관련 뉴스 보도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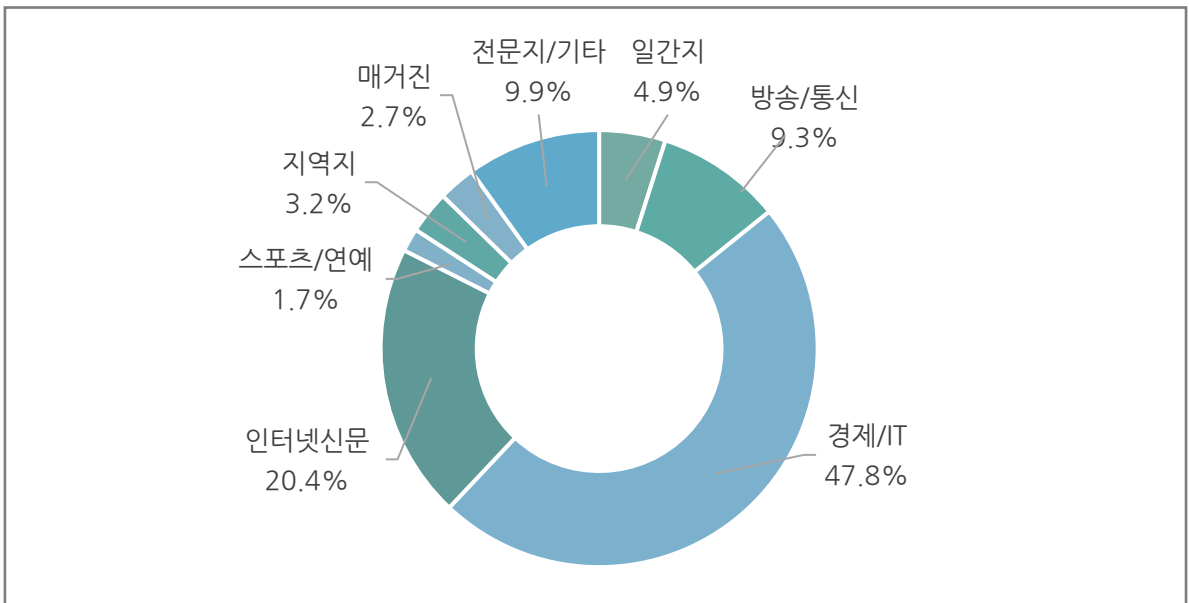
2018년 한국프롭테크포럼 창립 이후 '프롭테크'와 관련된 국내 뉴스 보도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보도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11월 한 달간 보도된 프롭테크 관련 기사는 23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월별 뉴스 보도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2020년 6월에 이르러서는 2018년도 수치의 13배에 달하는 315건의 프롭테크 관련 뉴스가 보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프롭테크 관련 뉴스 보도가 증가해온 것은 프롭테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한 지표를 통해 프롭테크 산업 전반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특히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프롭테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할만하다.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누적된 프롭테크 관련 뉴스 기사는 총 1,290건으로, 2020년에 들어서는 월평균 200건 이상의 기사가 보도되는 상황이다.

다만 국내 중앙지를 포함해 일간지를 통한 프롭테크 관련 보도 비율이 아직 낮다는 아쉬움이 있다. 2018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프롭테크' 관련 보도를 출처별로 살펴보면, 전체 3,603건의 기사 중 경제지 및 IT 관련 언론사를 통한 보도가 1,723건(4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을 통한 보도는 20.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즉 현재 프롭테크 관련 뉴스 보도가 경제/IT 전문 언론사 및 인터넷 언론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전문지 및 기타(9.9%) > 방송 및 통신사(9.3%) 순으로 보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일간지의 경우 4.9%의 비중을 차지했다. 물론 부동산과 IT 기술 등이 지닌 강한 경제적 특성과 전문성으로 인해, 프롭테크 또한 경제지와 IT 전문지 등에서 높은 주목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향후 프롭테크 산업이 미칠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좀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보도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2] 보도 출처별 ‘프롭테크’ 관련 뉴스 보도 비율



* 대상: 2018. 11. 01. ~ 2020. 06. 30. 프롭테크 관련 뉴스기사 3,603건

| 뉴스 출처 | 보도 건수(건) | 비율(%) |
|--------|----------|-------|
| 일간지 | 177 | 4.9 |
| 방송/통신 | 335 | 9.3 |
| 경제/IT | 1,723 | 47.8 |
| 인터넷신문 | 735 | 20.4 |
| 스포츠/연예 | 62 | 1.7 |
| 지역지 | 114 | 3.2 |
| 매거진 | 99 | 2.7 |
| 전문지/기타 | 358 | 9.9 |
| 합계 | 3,603 | 100.0 |

2. 프롭테크 뉴스기사 연관어 분석

[표1] ‘프롭테크’ 관련 뉴스기사 워드클라우드(800건, 가중치순)

| | |
|------------|---|
| | |
| 포괄 키워드(21) | 부동산, 합성어, 빅데이터, Proptech, 스타트업, Property, 정보기술, 인공지능, 부동산 서비스, AI, 블록체인, VR, MOU, 업무협약, 활성화, ICT, 스마트시티, 건설사, 코로나19, 투자 유치, 신기술자금 |
| 개별 키워드(5) | 직방, 우미건설, 스페이스워크, 브리즈인베스트먼트, 지인플러스 |

* 2018.07.01.~2020.06.30. 54개 언론사 ‘프롭테크’ 키워드 검색기사 연관어 분석(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국내 프롭테크 관련 뉴스기사에서 나타나는 주요 키워드를 알아보기 위해 ‘프롭테크’ 키워드로 검색한 기사에 대한 연관어 분석을 실시했다. 54개 언론사를 중심으로 하는 뉴스 분석 서비스 빅카인즈를 통해 2018년 07월 1일부터 2020년 06월 30일까지 ‘프롭테크’ 관련 기사를 수집한 결과 총 817건의 기사가 집계되었다. 이 중 정확도 상위 800개 뉴스를 대상으로 키워드 발생 빈도 및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키워드 간 연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관 키워드 1위는 프롭테크 정의와 연관성이 높은 ‘부동산’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Proptech’, ‘Property’, ‘합성어’, ‘부동산서비스’ 등 국내에서 아직은 생소한 프롭테크를 정의하기 위한 키워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프롭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현재 전 산업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등의 키워드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개별 키워드를 통해 프롭테크 주요 트렌드 및 현황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프롭테크 산업에 대한 기존 ‘건설사’들의 사업 영역 확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종합 건설사 ‘우미건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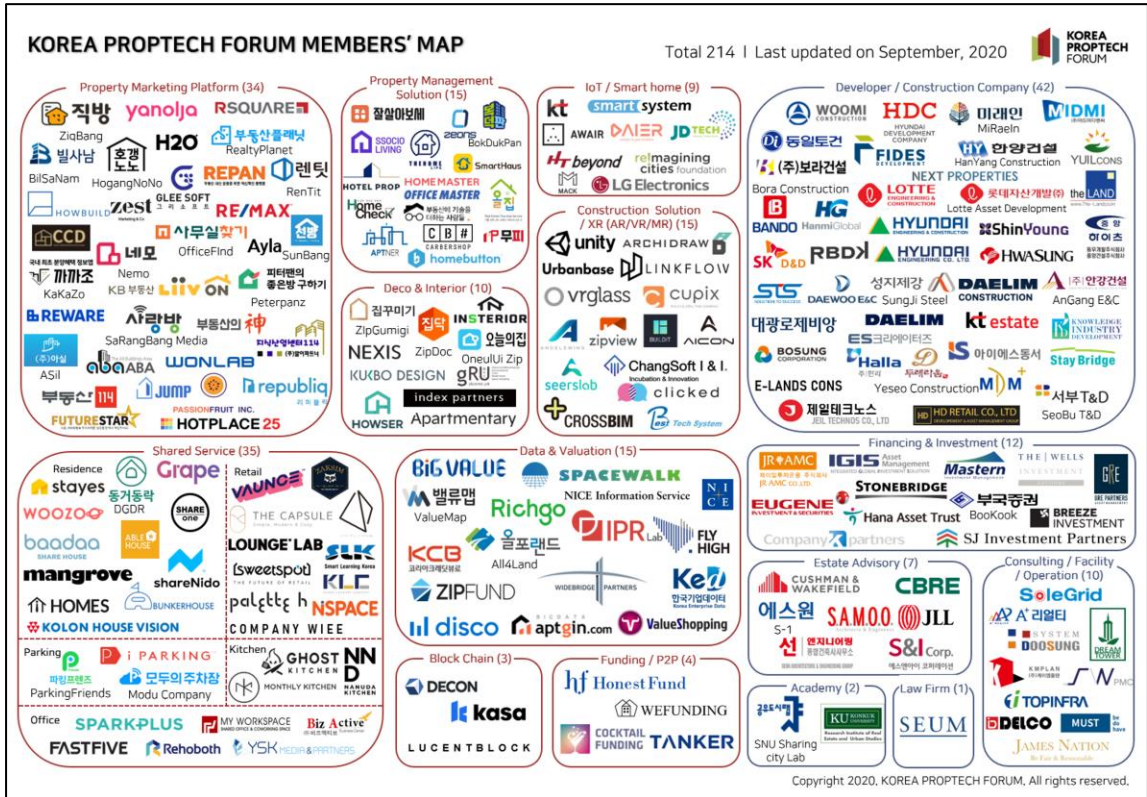
‘스페이스워크’를 비롯해 10여 개의 프롭테크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집행했으며, ‘직방’과 함께 국내 최초 프롭테크 전문 투자사인 ‘브리즈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다. ‘지인플러스’의 경우 호반건설에서 출범한 부동산 신산업 전문 액셀러레이터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서며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이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카사코리아와 같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2월 시작되어 전 세계 전 산업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코로나19’ 키워드도 나타났다. 하지만 프롭테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서 ‘VR’을 통한 가상 부동산 매물 투어, 사이버 모델하우스 등 부동산 언택트 시장에 걸맞은 사업 아이템을 등장시키며 그 영역을 넓혔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점이다. 다소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에서 벤처 및 스타트업을 위한 ‘신기술자금’ 지원 방안과 같은 여러 정책들을 펼쳤으나,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는 프롭테크 산업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향후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프롭테크 생태계

1. 한국프롭테크포럼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그림3] KOREA PROPTECH FORUM MEMBERS MAP(ver.2020.10.)



2020년 10월 기준 한국프롭테크포럼에는 214개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회원은 IT/TECH/스타트업 회원, 부동산 회원, 금융 회원, 특별 회원 총 네 종류로 구분된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전체 회원사 중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비중을 약 60%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현재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130개사(60.7%), 부동산 회원사 68개사(31.8%), 금융 및 특별 회원 16개사(7.5%)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포럼 회원사는 사업 성격에 따라 15개의 프롭테크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매달 신규 회원사 유입에 따라 업데이트되는 한국프롭테크포럼 프롭테크맵을 통해 각 카테고리별 회원사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IT/TECH/스타트업 분야 카테고리는 9개로 ‘Property Marketing Platform’, ‘Property Management Solution’, ‘Shared Service’, ‘Deco&Interior’, ‘Data&Valuation’, ‘Construction Solution/XR(AR/MR/VR)’, ‘IoT/SmartHome’, ‘Block Chain’, ‘Funding/P2P’가 있다.

o Property Marketing Platform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을 비롯해 물류 창고, 지식산업센터 등 다양한 영역의 부동산 매물 중개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업체들로 주로 구성된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원/투룸, 빌라, 아파트 등의 다양한 주거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는데 그 예로 부동산114, 직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호갱노노 등이 있다. 이 밖에 상업용 부동산에 특화된 업체로는 네모, 사무용 부동산 중개 및 토탈 솔루션 제공 업체로는 알스퀘어가 있으며, 물류 창고 전문 중개 업체인 리웨어도 있다. 야놀자 또한 기존 숙박 공간을 예약 서비스와 IoT, AI,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며 종합 여가 플랫폼으로서 함께하고 있다.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은 국내 프롭테크 산업에 가장 초창기 사업 모델이자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o Property Management Solution

‘Property Management Solution’은 기술을 통해 임대인, 부동산 소유인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을 관리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임대 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맞춤형 공간 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부동산 임대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는 홈버튼을 비롯해 스마트하우스, 올집플랫폼, 제온스 등이 있으며, 맞춤형 공간 관리 서비스 업체로는 아파트너, 카버샵, 홈마스터 등이 있다. ‘Property Management Solution’의 경우 초기에는 부동산 임대 및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폭넓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공간에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너는 앱 기반의 아파트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파트 거주민은 아파트너가 제공하는 앱을 통해 아파트 하자 보수 신청 및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시설 예약, 얼굴인식 입출입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다. 차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사례도 있다. 카버샵의 경우 스마트 키박스를 통해 주차 시간 동안 차량 점검 및 수리, 세차 등의 ‘카시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홈마스터는 가사도우미 중개 서비스인 홈마스터와 FM 중점 건물 청소 및 관리 서비스인 오피스마스터를 운영한다.

o Shared Service

오늘날 ‘Shared Service’는 더 이상 낯선 소비 트렌드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 또한 공유 서비스를 접목하여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공유 서비스는 카테고리 내에서 5개 분야인 ‘Residence’와 ‘Retail’, ‘Office’, ‘Kitchen’, ‘Parking’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Residence’는 주로 쉐어하우스 운영 기업들로 구성되며, 우주와 스테이즈, 홈즈컴퍼니 등이 속해있다. ‘Office’는 스파크플러스, 패스트파이브, 마이워크스페이스 등 공유 오피스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개별 입주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사 간의 커뮤니티 및 네트

워킹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해외 공유 오피스가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것에 반해 국내 공유 오피스는 오히려 상승세를 보일 수 있었다. ‘Kitchen’은 공유 주방 기업들로 배달 전문 주방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스트키친, 점포의 유휴 시간 공유 플랫폼 업체인 나누다키친 등이 포함된다. ‘Parking’에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주차 공간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두의주차장이나 파킹프렌즈, 파킹클라우드가 있다. 마지막으로 ‘Retail’은 개별 기업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이다. 이용자 특성과 지역, 소비패턴을 분석해 파티룸이나 스터디 카페 등으로 개발 또는 중개를 하는 앤스페이스, 유휴 공간 공유 플랫폼인 스위트스팟, 교육 공간 공유 서비스 스마트러닝코리아, 세탁 솔루션 제공 업체인 코리아런드리, 공유 미용실을 운영하는 팔레트에이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o Construction Solution / XR(AR/MR/VR)

‘Consturction Solution/XR’ 분야 기업들은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 건설 및 설계 과정을 더욱 효율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D 디지털 트윈 기술, 3D BIM 솔루션, AR 및 VR 등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전에 건설 현장 또는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들을 실행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3D 인테리어와 같이 가상으로 실제 공간을 구현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공간을 살펴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젤스윙은 드론으로 건설 현장을 촬영해 건설사에 현장 가상화 및 토공량 측정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큐픽스의 경우 360도 파노라마 비디오 및 사진을 이용한 3D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제공해 건설 현장 원격 방문, 건축 시공과정 확인 등이 가능하다. 집부는 몰입형 3D VR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반베이스는 도면 변환 기술과 VR, AR을 융합해 3D 홈디자인, 가상 인테리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o Deco & Interior

‘Deco&Interior’ 분야에는 온라인 인테리어 상품 판매 플랫폼과 인테리어 업체 중개 플랫폼 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위 ‘집콕’ 문화가 생겨나면서 더욱 활성화된 분야이기도 하다. 오늘의집, 집꾸미기로 대표되는 인테리어 상품 판매 플랫폼 기업들은 취향에 맞는 인테리어 소품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더 나아가 이용자 간에 다양한 인테리어 사례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웹이나 앱에서 인테리어 견적을 비교해 알맞은 업체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집닥, 인스테리어, 아파트멘터리 등이 있다.

o Data & Valuation

‘Data&Valuation’ 분야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프롭테크 분야 내에서 가장 기술적인 성격을 띠며 부동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있다. 스페이스워크는 빅데이터와 AI 분석 기술을 통해 한정된 토지 활용을 최대화하는 토지개발솔루션을 제공한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를 바탕으로 기존 부동산 가치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시세 자동 산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노우즈는 빅데이터, AI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양한 관점과 매트릭스로 분석해 부동산 투자를 돕는 리치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크래핑 기술로 등기 정보를 빠르게 가져오는 플라이하이를 비롯해 디스코, 부동산지인, 밸류쇼핑, 집펀드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

o Block Chain

‘Block Chain’ 분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동산 신탁 계약에 따른 수익증권 발행이 불가능했지만, 지난해 카사코리아가 금융위원회 혁신 금융 서비스로 선정되면서 규제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다.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은 신탁사가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 수익증권(DABS)을 발행하면 플랫폼 기업이 제공하는 거래소를 통해 증권을 소유 및 거래할 수 있다. 카사코리아와 함께 루센트블록도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5,000원부터 투자가 가능해 소액으로 상업용 빌딩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새로운 부동산 투자 시장으로 등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o Funding/P2P

‘Funding/P2P’ 분야는 기존 P2P금융 기업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영역을 넓힌 사례로, 어니스트펀드와 위펀딩, 탱커펀드가 대표적이다. 어니스트펀드는 부동산 PF 대출, 중소기업 동산담보 대출 등 폭넓은 범위의 부동산 상품을 제공한다. 위펀딩은 부동산 자산운용 특허를 기반으로 소액으로 가능한 부동산 투자 상품을 제공하며, 도시재생사업과 LH, SH 매입주택 사업 등의 다양한 상품들을 운영한다. 탱커펀드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P2P 부동산 담보대출 플랫폼과 부동산 시세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동산 서비스 산업 및 데이터 기반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o IoT / Smart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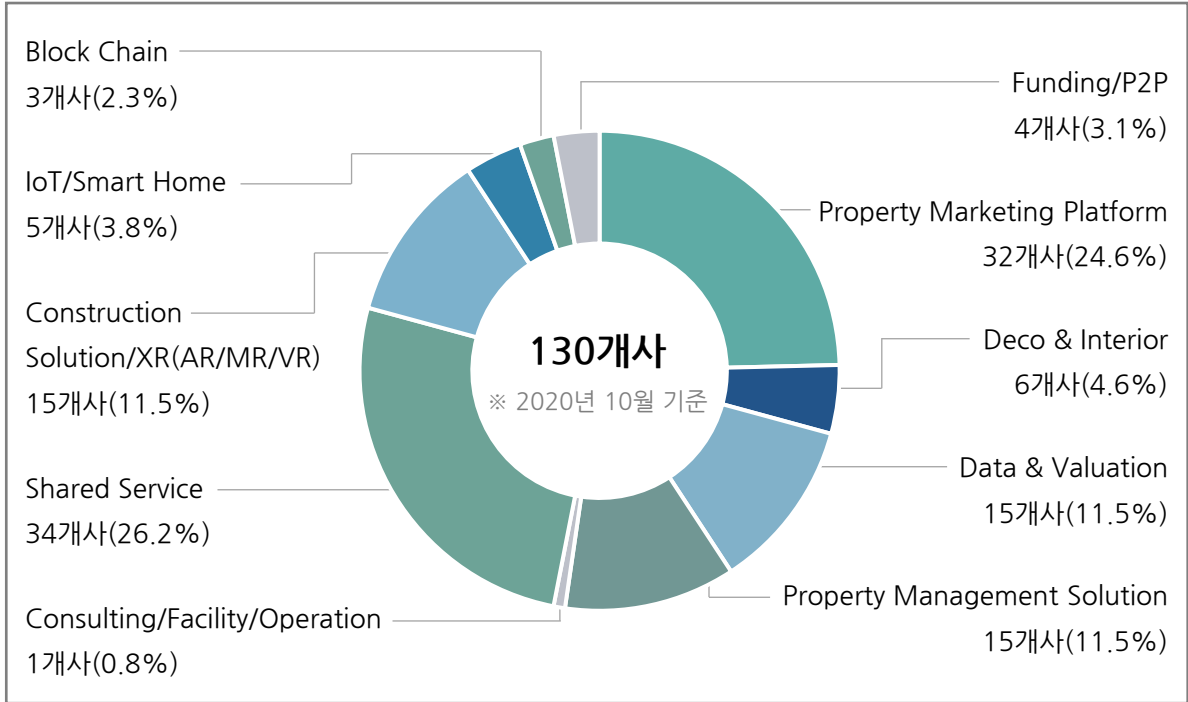
‘IoT / Smart Home’ 분야는 IoT 기술을 바탕으로 이용자를 위한 맞춤형 공간을 마련해 주는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IoT 센서로 공간에 대한 이용 패턴을 수집해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이어는 AIoT(AI+IoT) 기반 센싱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빌 시스템을 제공해 벽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벽체와 IoT가 연결된 스마트홈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어웨어는 기기에 내장된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 웹으로 공기질 정보를 수치화해 제공한다.

[표2]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회원사 리스트

| 카테고리 | 회원사 리스트 |
|--|---|
| Property Marketing Platform(32) | H2O Hospitality, 그리소프트, 까까조, 네모, 렌팅, 리웨어, 리판, 리퍼블릭, 마이빌딩북, 부동산114, 부동산의신, 부동산플래닛, 빌사남, 사랑방미디어, 사무실찾기, 선방, 아바, 아실, 아일라, 알스퀘어, 알이파트너, 야놀자, 점프, 제스트마케팅앤코, 직방, 친친디산업 개발, 패션푸르트, 퓨쳐스타,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하우빌드, 핫플레이스25, 호갱노노 |
| Property Management Solution(15) | 무피, 복덕판, 스마트하우스, 쏘시오리빙, 아파트너, 올집플랫폼, 잘살아보세, 제온스, 카버샵, 호텔프롭, 홈마스터, 홈버튼, 홈체크, 더홈라이프, 부기사 |
| Shared Service(34) | C.I.C, YSK미디어&파트너스, 고스트키친, 그레이프, 나누다키친, 더캡슐, 동거동락, 라운지랩, 르호봇, 마이워크스페이스, 먼솔리키친, 모두의주차장, 바다, 바운스, 벙커하우스, 비즈엑티브, 쉐어니도, 스마트러닝코리아, 스위트스팟, 스테이즈, 스파크플러스, 앤스페이스, 어반하이브리드, 에이블하우스, 엠지알브이, 우주, 작심, 컴퍼니위이, 파킹클라우드, 파킹프렌즈, 팔레트에이치, 홈즈컴퍼니 |
| Deco&Interior(6) | 아파트멘터리, 오늘의집, 인스테리어, 집꾸미기, 집닥, 하우스저 |
| Data&Valuation(15) | IPR Lab, 나이스평가정보, 디스코, 리치고, 밸류맵, 밸류모어, 밸류쇼핑, 부동산지인, 빅밸류, 스페이스워크, 올포랜드, 집펀드, 코리아크레딧뷰로, 플라이하이, 한국기업데이터 |
| Construction Solution /XR(AR/VR/MR)(15) | 링크플로우, 브이알글래스, 빌드잇, 시어스랩, 아이콘, 아키드로우, 어반베이스, 엔젤스윙, 유니티, 집뷰, 창소프트I&I, 큐픽스, 클릭트, 베스트텍시스템 |
| IoT/Smart Home(5) | BEYOND, 다이어, 스마트시스템, 어웨어, 제이디테크 |
| Block Chain(3) | 디콘, 루센트블록, 카사코리아 |
| Funding/P2P(4) | 어니스트펀드, 위펀딩, 각테일펀딩, 탱커편드 |
| Consulting / Facility / Operation(1) | 솔그리드 |

2. 카테고리별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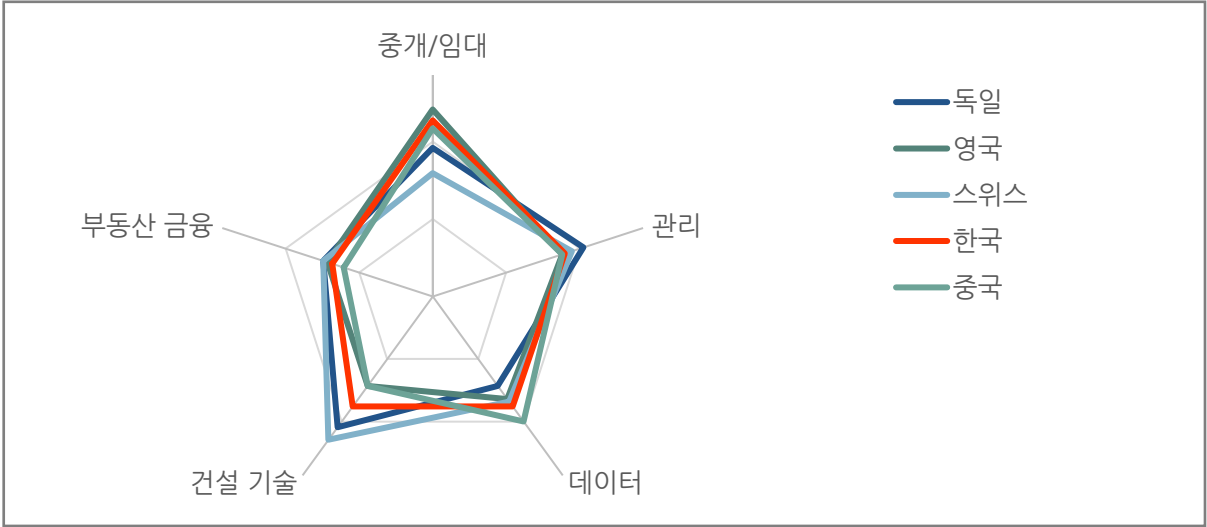
[그림4]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회원사 구성비 그래프



카테고리별 회원사 구성비를 살펴보면, ‘Shared Service’가 34개사로 26.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카테고리는 ‘Property Marketing Platform’(32개사, 24.6%)으로, 상위 두 개 카테고리를 합한 비율이 전체 회원사의 절반을 차지한다. ‘Property Management Solution’과 ‘Data&Valuation’, ‘Construction Solution/XR(AR/MR/VR)’ 카테고리의 경우 각각 15개사(11.5%)로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Deco&Interior’(6개사, 4.6%)와 ‘IoT/SmartHome’(5개사, 3.8%), ‘Funding/P2P’(4개사, 3.1%), ‘Block Chain’(3개사, 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Consulting / Facility / Operation’ 카테고리에 1개사(0.8%)가 포함되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Shared Service’와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이 총 50.8%로 전체 중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은 국내 프롭테크 산업에서 공간을 매개로 하는 기업이 아직까지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Shared Service’가 카테고리 내에서도 주거 및 오피스, 주차 등으로 세분화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내 프롭테크 산업에서는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의 부동산 중개 및 임대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5] 해외 주요 카테고리별 기업 구성비 그래프



국내 프롭테크 산업의 구성비에서 나아가 해외 프롭테크 산업의 구성비를 살펴보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이를 위해 영국과 독일, 스위스, 중국의 2019년도 기준 프롭테크 산업 분류 및 구성비 자료를 참조했다. 국가별로 프롭테크 산업 분류에 차이가 있어 5개의 주요 분야이자 공통 카테고리(중개/임대, 관리, 데이터, 건설 기술, 부동산 금융)를 기준으로 비교해보았다. 프롭테크 산업에서 부동산 중개 및 임대와 가장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각 국가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세부 카테고리별 성장 양상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o 한국

먼저 국내의 경우, '중개 및 임대' 분야가 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졌으며, 이 외에 '관리(18%)', '데이터(17%)', '건설 기술(17%)', '부동산 금융(9%)'의 순으로 비율이 나타나고 있다.

o 독일

독일은 '건설 기술' 분야가 29%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27%)', '중개/임대(22%)', '부동산 금융(11%)', '데이터(10%)'가 이어졌다. 특히 상위 3개 카테고리에 공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o 영국

영국의 경우 '중개/임대' 분야가 49%로 5가지의 카테고리 중 절반에 수렴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그다음은 '관리(17%)' 및 '데이터(14%)', '건설 기술(10%)', '부동산 금융(10%)'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중개/임대'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들은 10%대의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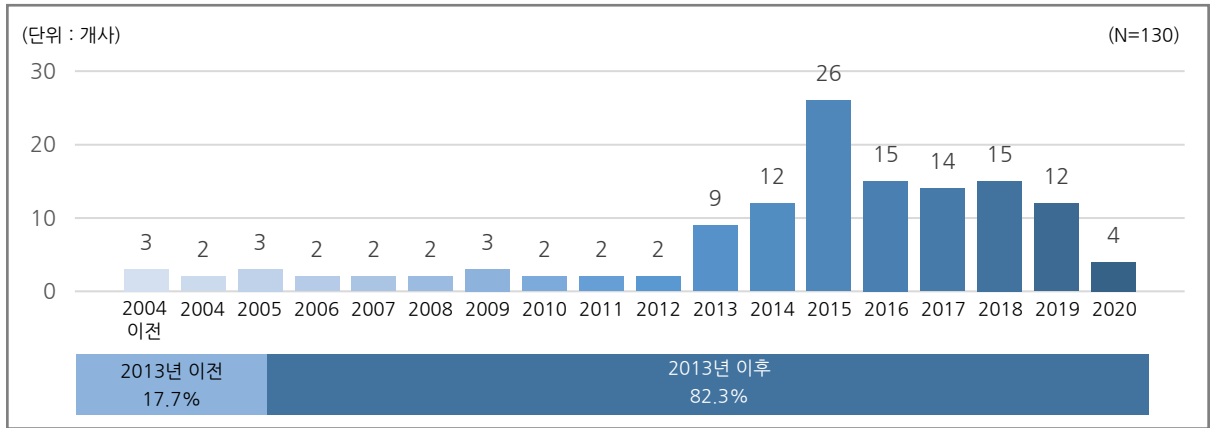
스위스는 '건설 기술' 분야가 40%에 달해 '건설 기술'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이어 '관리(21%)', '데이터(15%)', '중개/임대(13%)', '부동산 금융(11%)'이 이어졌다. 전 세계 프롭테크 산업의 동향을 '초창기 사업 모델인 중개/임대 분야의 빠른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된 것'으로 본다면, 스위스의 사례는 세계적 흐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 중국

중국은 '중개/임대'가 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다음으로 '데이터' 분야가 25%를 차지했다. 이어 '관리(17%)', '건설 기술(10%)', '부동산 금융(7%)'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국내보다 데이터 산업이 더 활성화되었으며, 건설 기술 분야는 비교적 작은 규모임을 알 수 있다.

3. 설립기간별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구성비

[그림6]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창업연도 구분



IT/TECH/스타트업 회원사는 2004년 이전에 설립된 3개사를 제외하면 2004년부터 매년 2개 이상, 평균 7.4개의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설립되어온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4년 이전부터 2012년까지는 매년 약 2~3개의 기업이 설립되었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해 프롭테크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2015년에는 한 해 동안 26개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창업하면서 가장 높은 창업률을 기록했다.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꾸준히 10개 이상의 프롭테크 스타트업의 창업이 이루어졌으며, 2020년도 상반기에 4개사가 창업한 상황이다.

사업 운영 기간별로 IT/TECH/스타트업 회원사를 분석해보면, ‘3년 미만’이 34개사(26.4%), ‘3년 이상 6년 미만’이 56개사(43.4%), ‘6년 이상 10년 미만’이 22개사(17.1%), ‘10년 이상’이 17개사(13.2%)를 보인다. ‘3년 이상 6년 미만’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사업 운영 기간이 6년 미만인 기업이 129개사 중 90개사로 총 67.8%의 비율을 보였다. 아울러 사업 운영 기간별 프롭테크 카테고리 구성비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o 사업 운영 기간: 10년 이상

사업 운영 기간이 10년 이상인 회원사는 17개사로,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이 7개사(41.2%)로 가장 많다. 이어 ‘Data&Valuation’이 4개사(23.5%), ‘Shared Service’가 3개사(17.6%), ‘Construction Solution/XR’이 2개사(11.8%), ‘IoT/Smart Home’이 1개사(5.9%)가 있다.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의 경우 부동산 114나 알스퀘어와 같은 초창기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이 있으며, 야놀자의 경우 여행 및 숙박 플랫폼으로 시작해 현재는 프롭테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Data&Valuation’ 분야에는 코리아크레딧뷰로와 같은 신용 정보 등 기업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이 포함된다.

o 사업 운영 기간 : 6년 이상 10년 미만

사업 운영 기간이 6년 이상 10년 미만인 회원사는 22개사이며, ‘Shared Service’가 10개사(45.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주차 및 주거, 리테일 등의 분야에 대한 공유 서비스 기업들이 다수 등장했다. 그 외에 ‘Property Marketing Platform’과 ‘Construction Solution/XR’이 각각 5개사(22.7%), ‘Deco&Interior’이 2개사(9.1%)를 차지했다. ‘Property Marketing Platform’ 분야에서는 직방, 피터팬의 좋은방구하기와 같은 초창기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Construction Solution/XR’ 분야에서는 어반베이스, 텐일레븐 등 3D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있다.

o 사업 운영 기간 : 3년 이상 6년 미만

사업 운영 기간이 3년 이상 6년 미만인 IT/TECH/스타트업 회원사는 56개사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 ‘Shared Service’가 14개사(25.0%)로 가장 많고,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이 11개사(19.6%)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 ‘Data&Valuation’이 8개사(14.3%), ‘Property Management Solution’이 7개사(12.5%), ‘Construction Solution/XR’이 5개사(8.9%)로 구성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Deco&Interior’와 ‘BlockChain&Funding/P2P’가 각각 4개사(7.1%), ‘IoT/Smart Home’이 2개사(3.6%), ‘Consulting/Facility/Operation’이 1개사(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3년 이상 6년 미만의 사업 운영 기간을 가진 기업들이 창업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프롭테크 전체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2017년 이전까지 프롭테크 영역이 확장되며 현재의 카테고리 구조를 정립했음을 알 수 있다.

o 사업 운영 기간 : 3년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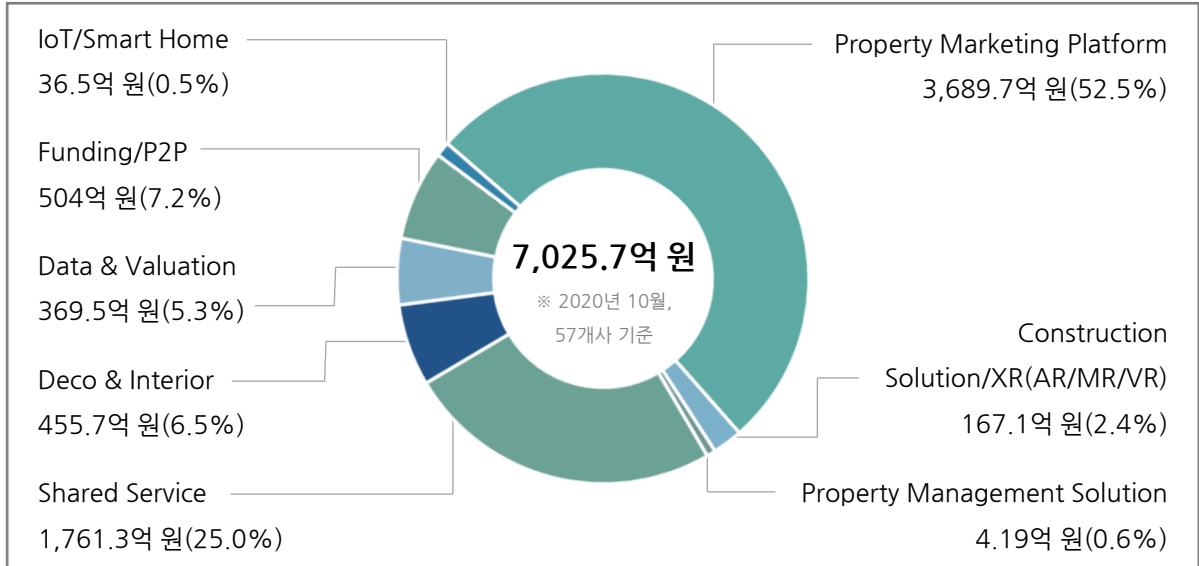
사업 운영 기간이 3년 미만인 회원사는 34개사이며 그중 ‘Property Marketing Platform’과 ‘Property Management Solution’이 각 8개사(23.5%)씩 포함되어 있다. ‘Shared Service’는 7개사(20.6%)가 있으며, ‘Data&Valuation’과 ‘Construction Solution/XR(AR/MR/VR)’, ‘BlockChain&Funding/P2P’가 각각 3개사(8.8%)씩, ‘IoT/Smart Home’이 2개사(5.9%)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Property Marketing Platform’에서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중심의 플랫폼들이 주를 이루었던 이전과 달리 아파트 분양 중개나 물류 중개 플랫폼, 지식산업센터 플랫폼 등 부동산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Shared Service’ 분야는 캡슐호텔, 복합문화공간, 공유 미용실 등 다양한 용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다수 나타났다. 또한 ‘Block Chain&Funding/P2P’의 경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금융 기업들이 등장하며,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시장이 형성되었다.

한국프롭테크포럼 스타트업 회원사 현황

1. 매출액

(1) 총매출액에 대한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비율

[그림7]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매출액 현황



한국프롭테크포럼 프롭테크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130개사 중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57개사의 2019년 기준 총매출액은 7025.7억 원이다. 카테고리별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이 3,689.7억 원이며 ‘Shared Service’가 1,761.3억 원으로 두 카테고리가 전체 매출액 규모의 77.6%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Funding / P2P’이 504.0억 원, ‘Deco & Interior’가 455.7억 원, ‘Data & Valuation’이 369.5억 원, ‘Construction Solution / XR’이 167.1억 원, ‘Property Management Solution’은 41.9억 원, ‘IoT / Smart Home’가 36.5억 원의 매출액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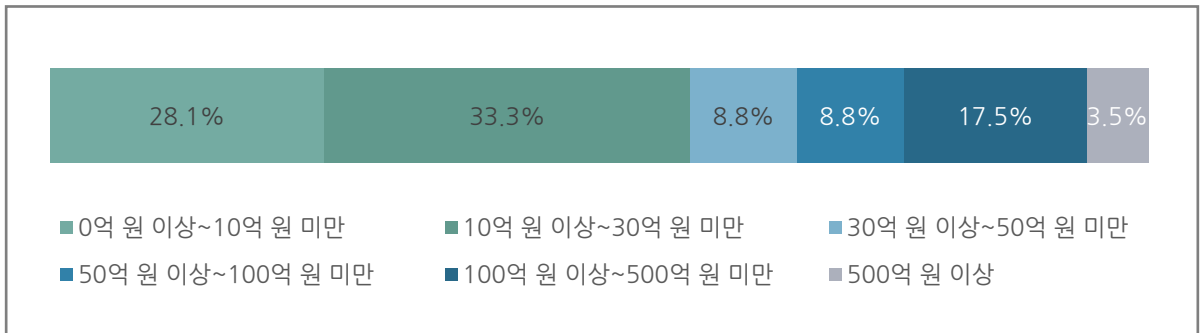
아울러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57개사의 전체 평균 매출액은 123.3억 원이다. 카테고리별 평균 매출액 규모를 보았을 때,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이 307.5억 원으로 역시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다. 다만 매출액을 공개한 회원사 수가 23개사인 ‘Shared Service’의 경우, 평균 매출액은 76.6억 원으로 총 금액에 비해 다소 낮은 평균액을 보였다. 아울러 매출액 공개 회원사 수가 각각 3개사, 4개사인 ‘Funding / P2P’와 ‘Deco & Interior’의 평균 매출액은 각각 168.0억 원, 113.9억 원으로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의 뒤를 이었다.

[표3]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매출액 합계 및 평균 도표

| 카테고리 | 전체 기업 수 | 총 매출액 | 평균 매출액 |
|--------------------------------------|-------------|-------------------|-----------------|
| Property Marketing Platform | 12개사 | 3,689.7억 원 | 307.4억 원 |
| Shared Service | 23개사 | 1,761.3억 원 | 76.5억 원 |
| Funding / P2P | 3개사 | 504억 원 | 168억 원 |
| Deco & Interior | 4개사 | 455.7억 원 | 113.9억 원 |
| Data & Valuation | 4개사 | 369.5억 원 | 92.3억 원 |
| Construction Solution / XR(AR/MR/VR) | 5개사 | 167.1억 원 | 33.4억 원 |
| Property Management Solution | 5개사 | 41.9억 원 | 8.3억 원 |
| IoT / Smart Home | 1개사 | 36.5억 원 | 36.5억 원 |
| 총합 | 57개사 | 7,025.7억 원 | 123.3억 원 |

(2) 매출액 규모별 기업 비율

[그림8] 매출액 규모별 기업 비율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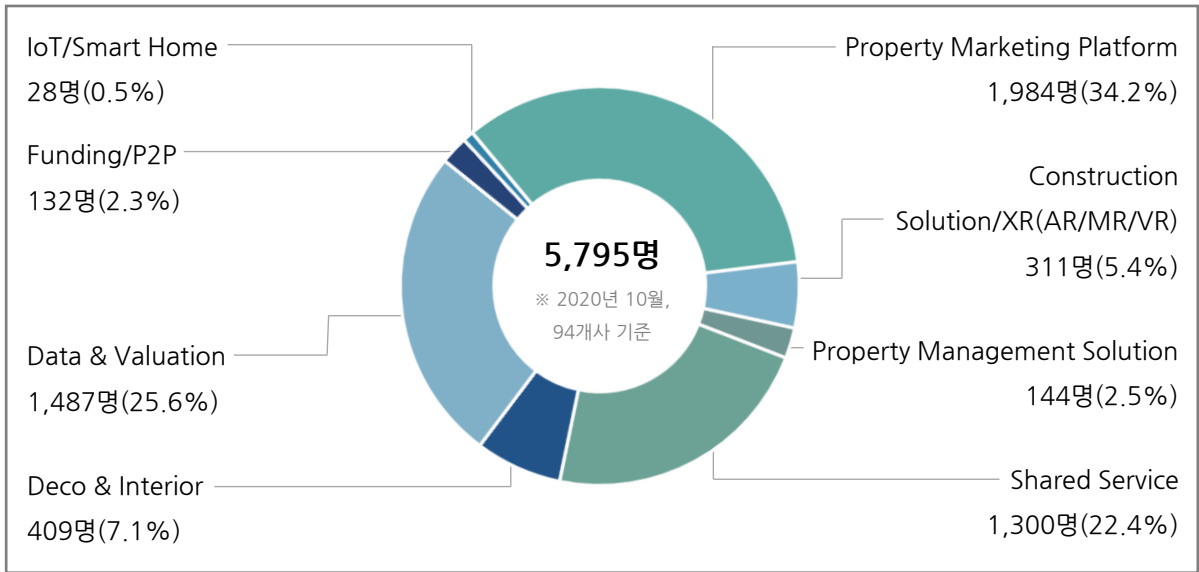
매출액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10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인 기업이 19개사(33.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0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기업이 16개사(28.1%)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매출액 규모가 3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전체 중 6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프롭테크 스타트업이 아직 영세한 규모임을 말해준다. 다만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의 기업이 10개사, 17.5%로 세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의 경우 약 3,0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프롭테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2. 재직자 수

(1) 총 재직자 수에 대한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비율

[그림9]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재직자 수 현황



한국프롭테크포럼 프롭테크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130개사 중 재직자 수를 공개한 94개사의 2020년 9월 기준 총 재직자 수는 5,795명이다. 재직자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Property Marketing Platform’으로 총 1,984명이 종사하며 전체 재직자 수 중 34.2%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Data & Valuation’, ‘Shared Service’가 각각 1,487명, 1,300명으로 모두 1,000명이 넘는 재직자 수를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Deco & Interior’가 409명, ‘Construction Solution / XR’이 311명, ‘Property Management Solution’이 144명, ‘Funding / P2P’가 132명, ‘IoT / Smart Home’이 28명의 재직자 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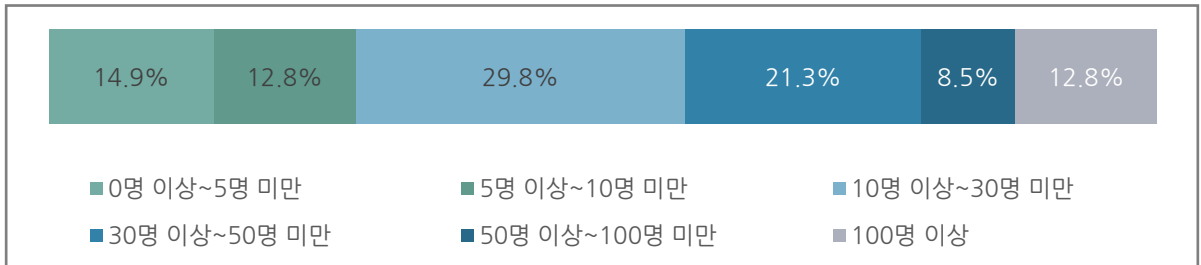
카테고리별 평균 재직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94개사의 전체 평균 재직자 수는 61.6명이다. 카테고리별 평균 재직자 수에서 ‘Data & Valuation’이 1114.4명으로 가장 높은 수를 보이며, 전체 카테고리 내에서 유일하게 평균 재직자 수가 100명이 넘었다. 그다음으로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이 94.5명, ‘Deco & Interior’가 68.2명, ‘Shared Service’가 50.0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업 사업 운영 외에도 현장 실무자가 다수 필요한 카테고리들이 상대적으로 재직자 수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4]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재직자 수 합계 및 평균 도표

| 카테고리 | 전체 기업 수 | 총 재직자 수 | 평균 재직자 수 |
|--------------------------------------|-------------|---------------|--------------|
| Property Marketing Platform | 21개사 | 1,984명 | 94.4명 |
| Data & Valuation | 13개사 | 1,487명 | 114.3명 |
| Shared Service | 26개사 | 1,300명 | 50명 |
| Deco & Interior | 6개사 | 409명 | 68.1명 |
| Construction Solution / XR(AR/MR/VR) | 12개사 | 311명 | 25.9명 |
| Property Management Solution | 11개사 | 144명 | 13.1명 |
| Funding / P2P | 3개사 | 132명 | 44명 |
| IoT / Smart Home | 2개사 | 28명 | 14명 |
| 총합 | 94개사 | 5,795명 | 61.6명 |

(2) 재직자 수 규모별 기업 비율

[그림10] 재직자 수 규모별 기업 비율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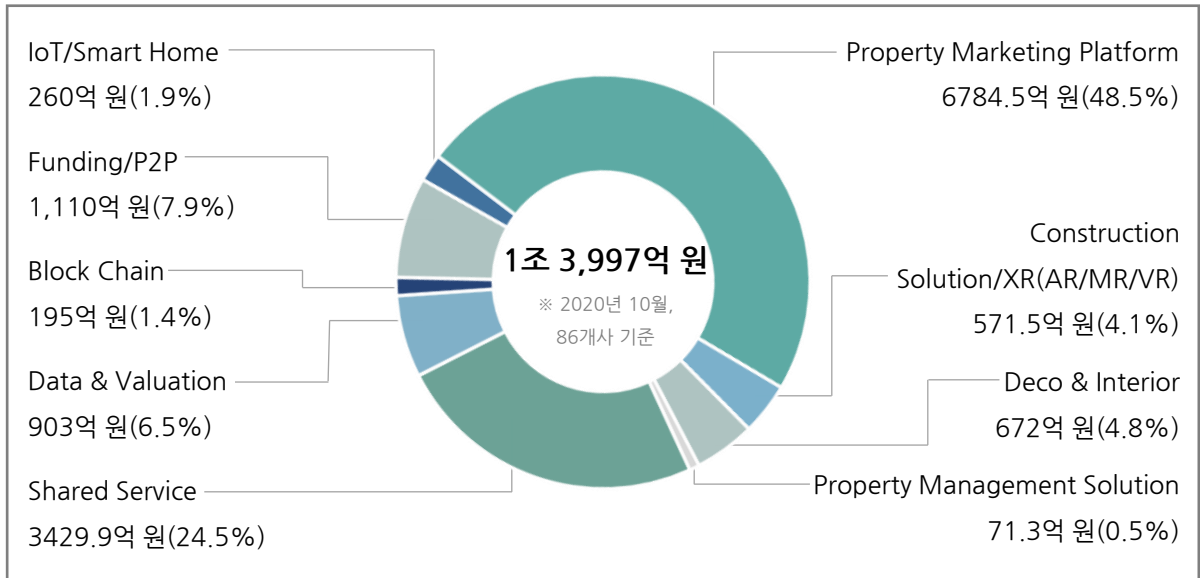
기업별로 재직자 수를 살펴보면,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야놀자가 약 1,000명으로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직자 수 규모별로 전체 기업 비율을 나누어보면 전체 회사 중 79%에 달하는 기업들이 50명 미만의 재직자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명 이상~30명 미만'인 기업이 28개사(29.8%)로 가장 많았고, '30명 이상~50명 미만' 기업이 20개사(21.3%)로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약 13%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재직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가 'Property Marketing Platform' 및 'Shared Service', 'Data & Valuation', 'Block Chain & Funding / P2P' 등의 카테고리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3. 투자액

(1) 누적 투자유치금액에 대한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비율

[그림11]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누적 투자유치금액 현황



한국프롭테크포럼 프롭테크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130개사 중 수치를 공개한 86개사의 2020년 10월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은 1조 3,997억 원이다. 프롭테크 카테고리별로 누적 투자유치금액을 살펴보면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이 6,784.5억 원으로 전체 투자금액 중 약 48.5%을 차지했다. 이어 ‘Shared Service’가 3,429.9억 원으로 24.5%를 차지했는데, 그중에서도 Office 분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그다음으로 ‘Funding / P2P’가 1,110억 원, ‘Data & Valuation’이 903억 원, ‘Deco & Interior’이 672억 원, ‘Construction Solution / XR(AR/MR/VR)’이 571.5억 원, ‘IoT / Smart Home’이 260억 원, ‘Block Chain’이 195억 원, ‘Property Management Solution’이 71.3억 원의 누적 투자유치금액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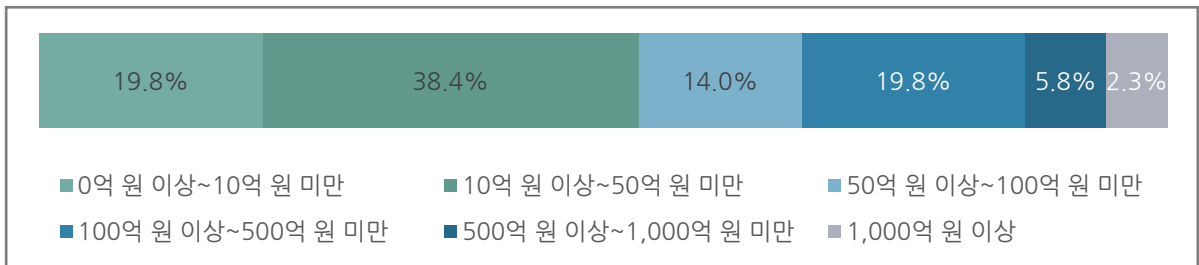
프롭테크 IT/TECH/스타트업 회원사 86개사의 전체 평균 투자유치금액은 162.8억 원이다. 카테고리별로는 ‘Property Marketing Platform’이 평균 투자유치금액 424.0억 원으로 총합계에 이어 가장 높은 금액을 보였다. 이어 ‘Funding / P2P’가 평균 투자유치금액 277.5억 원을 보이며, 그다음으로 높은 금액을 차지했다.

[표5] 프롭테크 카테고리별 누적 투자유치금액 합계 및 평균 도표

| 카테고리 | 전체 기업 수 | 총 투자액 | 평균 투자액 |
|--------------------------------------|-------------|--------------------|-----------------|
| Property Marketing Platform | 16개사 | 6,784.5억 원 | 424억 원 |
| Shared Service | 31개사 | 3,429.9억 원 | 110.6억 원 |
| Funding / P2P | 4개사 | 1,110억 원 | 277.5억 원 |
| Data & Valuation | 9개사 | 903억 원 | 100.3억 원 |
| Deco & Interior | 6개사 | 672억 원 | 112억 원 |
| Construction Solution / XR(AR/MR/VR) | 9개사 | 571.5억 원 | 63.5억 원 |
| IoT / Smart Home | 1개사 | 260억 원 | 260억 원 |
| Block Chain | 1개사 | 195억 원 | 195억 원 |
| 총합 | 86개사 | 1조 3,997억 원 | 162.8억 원 |

(2) 누적 투자유치금액 규모별 기업 비율

[그림12] 재직자 수 규모별 기업 비율 그래프



누적 투자유치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10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인 기업이 38.4%(33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0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500억 원 미만’인 기업 모두 19.8%(17개사) 그리고 ‘5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인 기업 14.0%(12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전체 중 약 27.9%로 1/4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Property Management Solution’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프롭테크 산업이 점차 고루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1,0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 받은 스타트업으로는 아놀자와 직방이 있으며, 각각 3,790억 원, 2,280억 원을 유치 받았다.

맺음말

프롭테크는 부동산 산업의 디지털화를 이끌며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국내에 프롭테크 기업들이 다수 등장했고, 2018년 11월 한국프롭테크포럼 창립과 함께 빠른 속도로 프롭테크 산업이 그 형태를 형성하며 국내 부동산 시장에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다.

프롭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상세해지고 있음은 언론 보도 현황에서 파악할 수 있다. 관련 보도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초기에는 대략적인 프롭테크에 대한 정의 및 이해가 주내용을 이루었다면 최근엔 프롭테크 내 다양한 세부 서비스들과 개별 이슈들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이는 프롭테크가 더 이상 생소한 산업이 아닌,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동산 산업의 핵심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26개사로 시작한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스타트업을 비롯해 건설사, 금융사, 학계 등 다양한 기업 및 단체 214개사가 회원으로 활동하며 프롭테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매출액, 재직자 수 현황을 기준으로 볼 때, 프롭테크 스타트업은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 대체로 영세한 규모를 보인다. 그러나 2020년에 들어서며 스타트업 회원사 86개사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은 1조를 넘어섰으며,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전문 투자사 설립, 관련 펀드 출현 등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투자 시장 규모는 커져가고 있다. 프롭테크는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창출에서 더 나아가 그 잠재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계속되며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프롭테크는 로우테크로서 아날로그적인 서비스 중심이었던 부동산 산업에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서 프롭테크는 핵심 역할을 하며 부동산 산업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다.

For more information

남은수 매니저 eunshuu@proptech.or.kr

류효정 매니저 ryouhyojung1103@proptech.or.kr

MAKE THE WORLD SMARTER

KOREA PROPTech FORUM

02.6959.0738
welcome@proptech.or.kr